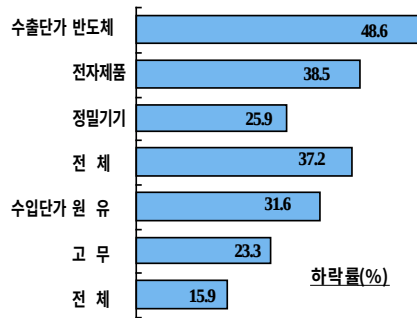


<1998(1~3)> 무역채산성 사상 최악



고환율의 영향으로 반도체와 전자제품 수출 주력상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무역채산성이 최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은행이 발표한 「98년 1/4분기 교역조건 동향」에 따르면, 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눈 순상품 교역조건 지수는 74.7로 현행 교역조건 계산방식이 도입된 8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.

순상품 교역조건지수는 94년 4/4분기에 103.7을 기록한 이후 97년 1/4분기 79.0로 하락세를 지속, 2/4분기 81.4로

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3/4분기 77.0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계속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.

무역채산성을 나타내는 순상품 교역조건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수입단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, 환율상승으로 수출단가의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그만큼 우리상품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.

<화학저널 1998/7/27>